



#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0(1991)년 4월  
←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52(196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1(1972)년 4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8월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8월



서해감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9월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5(1986)년 11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6(1987)년 11월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8(1989)년 11월







#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련친 심장의 교백

위대한 사상과 업적에는 만민이 열화같은 호모와 칭송이 따르지만이다. 세상사람들은 이 진리를 세계 5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목청껏 외친 심장의 교백을 통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

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는 더욱더 영광스런 학자의 절절한 당부 저 뇌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은 평범한 학자에 불과한 나의 병과 함께 마음의 상처까지 가져 주었고 잊었다. 그렇다. 지금 내가 안겨있는 이 몸이 바로 진정한 나의 조국이며 어머니이다.

주식였으며 세계정치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정의 철추를 내리시었다. 정녕 어버이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행님의 사상과 평도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계사화위업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신 철세의 위인이시이다.

# 제 주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호박소고 돼지우리에 기여하는 말이 있다. 스스로 제 죽을 구멍에 찾아들이는 미련한 행위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일본반동들이 노는 꼴이 꼭 그러하다.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일본당국이 국외로 심중히 따져보고 않고 미국의 하수노릇을 하면서 감히 우리를 감고있는 《인권》조작에 앞장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로성과 불배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문제는 이런 참다운 사회제도를 알지도 리해하지도 못하며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아부와 굴종으로 살아가는데 제정화된 일본이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나도 많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조일사이에는 여러차례의 교섭과 회담들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리성있는 정치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일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림장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꾀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선의와 정당한 요구에 반공화국적대성책으로 대답하여내었다.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것도,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영상을 훼손시키기 위해 음모로 양으로 책동해나간것도 바로 실나라 일본이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 우리 인민에게 끼친 최악에 한 찰사를 심하게 반성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한을 남긴 우리 인민의 뼈대천의 원수이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과거 일본이 강행한 전대미문의 만행으로 하여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때도 남아있다. 상처입은 가슴에 또 다시 칼질을 해대는 일본의 처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수 모르는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인권공세》에 적극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 주체사상의 승리에 대한 확신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서기장이었던 비슈와나스가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한것은 주제 71(1982)년 4월이었다. 그 나날 비슈와나스는 여러 나라의 벗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 초대되게 되었다.

합동회의에 참가한 비슈와나스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처럼 비움고싶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주석단에 나오시는것이였다. 그는 한말씀을 달려가 인사사를 드리고싶은 충동을 애yles 없었다. 며칠전에도 그의 불우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정녕 그분은 사상과 리론의 영재시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단 한한번이라도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바라던 비슈와나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사리》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전선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휴식시간이 선포되었다. 졸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르

## 프랑스 학자의 절절한 당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프랑스의 베르테르 부도가 우리 나라를 세번에 찾아왔을 때였다. 평양에 도착한 그는 이미전부터 알고있던 난치의 병으로 학술연구사업은 고사하고 자리에 누워 병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던 안되었다. 그후 프랑스에 돌아간 그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한번 믿으신 전사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 보살펴주고 빛나게 주시는 위대한분부이시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자그마한 비를 하나 세워달라. 붉은 대리석에 태양을 그리고 그림에 오각형을 새겨넣어라. 태양은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동지를 상징하며 오각별은 태양의 두리에 걸속된 5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미판이다.》

## 도서에 어린 위인 흉모

주제 89(2000)년 4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 제15차 회의에서 명예리사장으로 선출된 리노우에 슈우제의 머리에 새겨진 흉모가 20세기 마지막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사회주의가 일찍이 도 진통을 겪게 되자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늘어놓았다. 바로 이러한 시기 진보적인인류

## 제2, 제3의 퍼구스사래의 소용돌이속에서 절대로 헤여날수 없다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간사울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구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 각지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고조, 경찰들 시위진압에 광분

# 대조선 《인권결의》를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자

##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국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전선협회가 11월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유엔무대에서 가장 파렴치한 대조선《인권결의》가 조작된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 《결의》는 미국과 일본, EU의 일부 나라들 등 추종세력들이 교란해낸것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에는 《인권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도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인본보장제도가 세워져 있다.

집없는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득실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이야말로 인연유린국들이다.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면 서 수많은 평화적인인민들을 살륙한 미국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일본도 지난 시기 아시아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범국이다. EU의 일부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반공과 인종주의의 위협속에 살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는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고함, 제 부도 처자까지 버린채 도망간자들이 주어선진 거짓자료들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이 《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배격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대한 초강경대응 전진입을 선포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 제2, 제3의 퍼구스사래의 소용돌이속에서 절대로 헤여날수 없다

## 미국 각지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고조, 경찰들 시위진압에 광분

미국 각지에서 최근 반인종주의시위들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과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분노한 수백명의 군중이 항의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상징장물들을 들부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간사울을 형성한 시위자들이 기차길을 가로막고 철차운행을 저지시켰다. 이날 뉴욕과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한편 11월 29일 퍼구스에서 시위대는 제퍼슨 씨드에 있는 미주리주 지사관저까지 193km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데도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 각지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고조, 경찰들 시위진압에 광분

서 항의시위가 100여일째 계속되고있는 속에 벌어진 살해사건으로 미국의 각지에 이번 사건은 인권의 동태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청년 살해사건으로 미국의 각지에 이번 사건은 인권의 동태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청년 살해사건으로 미국의 각지에 이번 사건은 인권의 동태

## 무장총돌지대들에서의 무차별적인 힘의 사용, 의도적인 살인계획

(2012년 8월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라크에서의 총돌은 11만 7 000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중 약 1만 4 700명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연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불굴의 자유》작전이 개시된 이래 약 1만 4 400-1만 7 200명의 평화적공민이 죽었으며 9 000명이 미군주도의 국제연합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레오 활동을 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무인으로 소멸하는 작전이 계속되고있다. 미군이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인신부들과 어린이들을 총살하며 불구로 만들거나 시체를 여러 토막으로 갈라놓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사건이 가장 엄중할 때에 단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받고있다.)

미국은 무장총돌지대들에서 무차별적인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있다.

## 《미국 인권보장실례보고서》(4)

### || 로씨야 외무성의 웹사이트에 실린 글 ||

불러일으켰다. 2012년 3월 11일 미군사 로버트 베일즈는 칸다하르시의 판도라이에 있는 기차를 빠져나와 인근의 한 마을에 가서 9명의 어린이와 1명의 임신부를 포함한 16명의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사살하고 그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국외위원회는 이 《칸다하르살륙》에 다른 미군인들도 참여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2012년 4월 제82항공공군사단의 한 병사자 신문 《로스안젤레스 타임스》에 자기 동료들이 죽은 무장성원들의 시체들과 함께 찍은 18장의 사진을 넘겨주었다. 가장 극단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을다. 실제로 2010년 여름 《시합살사》 일부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마구 선택하여 죽인 5명의 미군병사가 기소되었다. 사망자들속에는 15살 난 미성년도 있었다.

## 사람잡지행위와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들, 고문

(폴스정보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타이, 마르코, 지부리, 로르니아, 리브리아등에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미당국은 장치가 감옥들에 수감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고있다. 비밀감옥들에서 미국은 고문행위를 마구 강행하고있다. 이 범죄행위에 책임있는자들은 미사법

당국의 보호를 받고있다. 미당국에 대한 이 특수감옥수감자들의 소송은 차관되고있다.

2006년 9월 부부는 미중앙정보국 비밀감옥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은 2002년-2003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이, 마르코, 지부리, 로르니아, 리브리아, 필스카를 비롯

한 외국령토에 10여개의 이런 감옥들을 건설하고 법적공백 상태에서 100여명의 수감자들을 감금하였다. 강제여류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랍치하는것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3국에서 로씨야공민들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랍치하는것은 로미판정에 현저한 손실을 끼친다. 《가짜증거》와 의심스러운 증거자료들에 기초하여 타이에서 로씨야공민들, 아. 부르프, 리베리아에서 가. 례. 야로르르르르 체포한것이 그 명백한 실례로 된다. 이들에게 가한 육체적 및 심리적압박은 조사와 재판과정의 의거한 증거자료자료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부드와 아르르르르에 대한 국제판공소의 판결을 부당하고 정치화되었다고 인정한다.

2009년 4월 16일 미사법정은 2002년-2005년에 기관의 법전문가들이 작성한 4건의 비망록을 대륙 사색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건들은 미국의 법과 국제법의 견지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 수감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가한 심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법적이라고 역설하고있다.

문건들은 14가지의 《비정통적인》 심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을

2007년 유엔리사회회의 스위스 상원의원 마르티의 보고서 등 문건들에서는 미중앙정보국 비밀감옥들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에게 대한 처우를 고문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문을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게 미사법정은 레로르르르의 자들에 대한 심문에서 직접 혹독한 방법을 적용한 특수기판요원들과 고문을 승인한 책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것을 정하였다.

2002년 미국인 파릴리는 뉴욕의 일반감옥에서 사우스

## 관파나모미해군기지 감옥과 무기한 감금

(법적공백상태에 있는 미국의 관파나모기지 감옥은 연일 존재하고있다. 거기에는 수십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무기한 혹은 아무런 기소도 없이 여러해째 감금되어있으며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감금자들의 죄는 지어 그것이 소문과 간접적인 증거물들에 기초하고 있는데도 믿음만 한것이라고 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채택되고있는 법률은 미행정부관파나모미해군기지를 해할 의향이 있다고 말할수 없게 하고있다.)

2012년 1월에 관파나모(구바)의 미해군기지에 있는 감옥이 《참살》10년을 맞이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선거전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반대라고 하면서 감옥을 폐쇄하지 못하였다. 공개된 소식통들의 통보만 놓고보더라도 10년간 7799명의 외국인이 관파나모에서 형기를 치르였으며 그중 8명이 사망(6명은 자살)하였다. 2012년 8월초현재 감옥에

2002년에 파키스탄에서 체포되어 아무런 기소도 없이 법적공백상태에 있는 로씨야공민가조브를 포함하여 24개 나라에서 168명의 수감자들이 남아있다. 감옥에 의연 남아있는 수감자들중에는 석방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미행정부사관이 인정한 사람이 87명이나 된다.

2011년 12월 31일 미국제법통령은 관파나모의 수감자들을 미국령토로 이송하고 그들을 3국에 넘기는것을 제한하기 위한 현대사자극리용의 지침을 또다시 연장한 법 《2012회계연도 국방비지출의 한도제에 대하여》에 수포하였다. 이것은 본질상 가까운 앞날에 감옥이 폐쇄될 가능성이 없다는것을 확정해준다.

2006년 5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미국이 아무런 기소도 없이 무기한 감금하는것은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반대에 관한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